

부활 제 6 주일

기도서 301 면(B해)
 제1독서: 사 도 10, 25-26. 34-35. 44-48
 제2독서: 1 요한 4, 7-10
 복 음: 요 한 15, 9-17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것이 나의 계명이다.

(요한 15, 12)

강론



“서로 사랑하라”

오 현택 신부

주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추구의 방법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1요한 4장).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께서서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어 온 인류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물리친 사건이 바로 원조의 원죄였고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사랑의 결과인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잃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조한 만물중에 오로지 인간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잃은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사랑자체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시에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할 당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참으로 당신 자신이 사랑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체 안의 삶과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실천의 선행 조건은 바로 진정한 신뢰(믿음)였습니다. 믿음 없이는 진정한 사랑실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와 우리끼리 서로 믿음으로 일치될 때 진정한 사랑실천이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신 주 예수님은 33년을 우리와 함께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여대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 특히 한국의 성인 성녀들의 삶과 죽음도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뿐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회의 관계를 봅시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랑으로 태어난 자녀, 사랑으로 일치된 형제자매들, 즉, 인간 기초공동체인 가정이 사랑으로 맺어졌고 가정의 확산이 사회요 민족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가정의 행복과 평화도,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참다운 삶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증거의 해를 사는 우리 모두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특히 교회의 어머니시며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의 달에 특별히 사랑자체이신 아들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속에 보람있는 증거의 해, 오월을 보냅니다.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요한 15장 10)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장 17). (금암동 주임신부)



바보 요금

—한국민의 고민

텔레비전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며, 오락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뿐더러 윤리적이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토막의 광고까지라도 건전하고 책임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텔레비전이 대중 매체의 대표적인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안방의 침입자이기도 하다. 그것은 식구들끼리의 대화를 단절하는 역할을 거침없이 해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또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상자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토해내는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세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행될 때, 그 해독은 참으로 크다. 우리는 유신정권이 가톨릭 농민회나 가톨릭 노동청년회 등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나쁜것으로(심지어는 容共視) 몰아부친 역사를 보아서 잘 알고 있다.

고산 천주교회와 가톨릭 농민회 완주협의회는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이유로는 한국 방송공사(KBS)가 농민의 삶을 부정한 채 소수 몇 사람만의 방송으로 전락한 데에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광고료까지 포함하여 비싼 공산품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니, 상업광고만으로도 수백억의 흑자를 보는 방송공사에 시청료를 내는 일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청료 제납에 대한 가산금이나 국제징수법에 의한 제납처분이 가능하게한 국가보위 입법회의의 입법에도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송공사의 공정한 보도, 광고료와 시청료, 시청료의 사용 용도 등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없애버리면 바보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고...

순정이 산책



많이 타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15:5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다(창세 49:11, 예레 2:21, 예제 17:6, 호세 10:1, 시편 80:9). 때가 차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롭게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것은 바로 「새 계약」인 것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니,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마태 7:16).

이제 우리는 모세적인 중(민수 12:7)이 아니고, 또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것이 아니고, 그분의 「벗」이라(15:3,5,15)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15:5).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은 「너희는 나의 벗이다」(15절)라는 말과 같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것, 그것은 「가지」의 존재 이유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4절)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것, 그것은 「존재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열매」는 이 존재 근원에서 연유되는 것이다(17:21 참조).

우리는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후3:5-6). 예수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7절), 그것은 결국 모든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에서 그 근본과 전표를 보여 주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구현을 말하는 것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말씀에 충실했던 마리아 *****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마리아는 교회의 탁월한 일원으로써,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동시에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신다. 그러나 마리아의 지상생애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여인으로서 성서의 말씀을 충실히 실행한 분이셨다. -예수의 잉태 전부터 구원사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1) 예수를 잉태하기 전-마리아는 구약성서가 가르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생활에 옮겼다. 이는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현명한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성모 영보 때 주님의 종임을 의식하며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루가 1, 26-39), 엘리사벳 방문때의 찬가(루가 2, 46-55)에서이다. 특히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마리아가 구약성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2) 예수의 사생활 동안-마리아는 육화와 구원의 현의 속에 숨은 뜻을 찾고 있었다. 30년간 예수와 친밀히 지내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시고 살아가시고 가르치시는 복음의 정신을 완전히 배우셨다. 예수의 배움터에서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신약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마리아는 구약에 예언된 일이 예수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줄 알았다. -영보

의 위대한 계시, 엘리사벳 방문, 예수의 성탄, 성전 봉헌, 나자렛의 숨은 생활 등-마리아는 모든 것을 보고 묵상하였다. 루가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루가 2, 52)". 라고 기록하고 있다.

3) 예수의 공생활 동안-성서에 의하면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으며 그곳에는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마리아의 전구로써 예수는 물을 술로 변화시키셨다. 마리아는 예수의 공생활의 길을 열었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와 제자들을 뒤따르며 그들에게 봉사한 부인들이 몇 있었으나 마리아는 가장 충실한 자였다. 구원신비의 절정인 십자가 밑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아들을 성부께 바치셨다.

이와 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한 마리아는 정녕 우리의 모범이요, 귀감이시다. 예수의 삶을 뒤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아무도 마리아의 도우심을 등한시 할 수 없다.

마리아에 대한 무수한 덕을 기리는 동시에 일상 생활 안에서의 충실성을 본받고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마리아의 눈길 아래에서 살아가자.

◆희소식!
각종 난치병(간경화, 암)등 치료는 가능하나?

건강 무료특강!

(개인 면담 가능함)

※ 단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 시 : 1985. 5. 18(토) 오후 2시부터

장 소 : 전주 성모병원 3층 309호실

강 사 : 최 중 명(노렌조) 수사

※ 문의전화 : 72-3925

마기환 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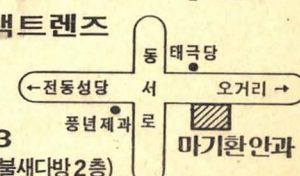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의 마기환

한 남 회(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2층)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끝나면 그만인가?

영세직 직전에 즉석 대부모가 되어 영세직이 끝남과 동시에 그 관계도 끊어져(?) 버티는—, 솔직한 요즘의 우리 세대가 아닐까?

대부모 대자녀들의 상봉이 한창이다. 무주 본당에서는 대부모 자녀들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자신의 대부모 대자녀를 찾아 만남의 기쁨속에 신앙의 정을 새롭게 나누고 있다는 흐뭇한 이야기.

당신의 대부, 대모는 어디 계십니까? 혹시, 부모 잃은 신앙의 고아는 아니십니까? 당신의 이산가족을 찾으십시오.

이 좋은 운동이 널리 퍼져 신앙생활의 길고 긴 여정을 함께 손잡고 나가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가 되었으면…….

□ 고맙습니다.

치고, 달리고, 받고..., 스트라일!

멋진(?) 품으로 명심판 흉내를 내시는 병엽 신부님과 슬라이딩 한담시고 무조건 뽀구는 꼬마들이 신났다.

어린이 날을 맞아 창인동 본당 교우 두 분(곽영근-토마스, 김은홍-미카엘)이 용안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구세트 일체를 선물한 것.

도시와 농촌 본당간의 유대를 깊이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늘상 강조해오느 바이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도 얼마나 마음 흐뭇한가?

고맙습니다! —용안본당 꼬마들이 외치는 소리만큼이나 전한 사랑의 정에 우리의 5월은 더욱 푸르다.

□ 숲정이 명상

같이 아파하는 마음

“남의 일 때문에 가슴 아픈적이 있으나,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애가 타는, 바로 그런 심정 말입니다...”

일찌기 인간의 삶의 방향을 사랑으로 제시하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렇듯 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선한 사람의 내적 충동을 이웃 사랑이라 하였고 그 이웃사랑을 하느님 사랑과 동일시 하셨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다.

남도 나와 같은 한 인간이라는 존엄한 입장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놓는 일—다시 말하면 우리 이웃에게 천사노릇 할줄 안다는 것—바로 그것이다.

남의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것 부러가 하늘의 은총이 아닐까?

그리하여 위로할 이웃을 참담게 찾기 위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바로 이웃 사랑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동정심이 아니다.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다.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힘이 아예 퍼내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높은 것을 헐어서 낮은 것을 배우는 행동이 아니라 끝없이 같이 높아지는 것이다.

사랑—, 너무나 험하게 쓰여지고 있는 때문인지, 이제 그 무게나 그 의미가 전혀 새로운 감각으로 들려오고 느껴지게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사랑이라는 말이 오히려—, 웬지 서글프다.

요십이 (614) 김병오

월남이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망하니까...



높은놈들은 많은돈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잘살고있고...



세금만 꼬박꼬박내던 서민들은 공산치하에서 죽지못해살고있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능한 독재자는 나라까지 망하게하느구나!



고려페인트 대리점

- * 각종 페인트 도색매
- * 공사청부 * 집수리 전문
- * 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상담

대한 도장공사

김 의 화 (요셉)
 ☎ ③4874, ④6522
 전주 서노송동 (중앙성당 옆)

※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비노기과
 원장전문이 **최昌吉** (루가)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 (글라라)
 ☎ ③1719, ④0816 (상당전화)
 (구역전오거리 · 팔달로 동편 2층)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코오롱 모드

자신감으로 나선 건티 맨스타타
 돋보이는 남성의 품위 맨스타타

주: 김 아드리야노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 ⑧ 8415
 (전북은행 중부지점 앞)

개업 1주년 기념 사은 대특매

기간: 4. 28 ~ 5. 27

- 사은품 증정
- ① 파카 크리스탈잔 세트
 - ② 나이키 신발 · 나이키 등산복용 배 · 나이키 스포츠웨어
 - ③ 냉장고용 삼단 배

삼성전자 중부 대리점

중앙시장 육교 옆 (4-4314, 74-5161)
 김(빈첸시오) · 윤(엘리사벳)

교 구 소 식

☆ 축! 영명 성마티아(14일):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축하합니다

☆ 축! 검진: 여산 천주교회, 19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1지구 중·고지도자 정기모임
일시-5월 12일 오후 2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준비물-필기도구·본당 지도자 명단, 회비-1천원
2. 제23차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일시-5월 12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L.M회의실, 대상-전주지구 각 본당 브레시디움 간부들
3. 교리교사 각 본당 회장·지구임원·교구임원 5월 모임: 일시-5월 13일 오후 6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3 층
4. 5월중 교미시움 회의: 일시-5월 19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참석대상-각 꾸리아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5. 원광대학교 캠퍼스 미사를 드립니다: 일시-85, 5, 14 오전 10시 30분, 장소-원광대학교 가정관 앞 잔디밭
6. 중·고 지도자 피정: 일시-3월 18일~19일(접수-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7천원
7. 남자 성소자 모임(고·대·일반): 5월 19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8. 5월중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25일 오후 9시~26일 오전 6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대상-모든 교우들
9. 1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일시-5월 27일, 장소-해성고등학교
10. 여성 제19차 푸르실료: 5월 24일~27일, 신청마감일-14일까지, ※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께 상의 바람
11. 제 8기 예비자반 모집: 개강-5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접수처-교구청 교육국(☎ 0041~3)
12. 하나회 공예작품 전시회: 5월 19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 회관(구, 성모병원)
※ 호남성직자체육대회: 무사히 잘마쳤습니다.
물론 우승했죠. 수고하신 분들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병환 신부님 출국: 캐나다 교포사목을 위해 12일 1시에 떠나시는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Rev, John Kim, 김병환 신부: St. Peter's Cathedral
196 Dufferin Ave
LONDON, Ont. N 6 A 1K8, CANADA(Tel.519-673-0037)

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3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도회장 이 흥 재

노 송 동
천 주 교 회

사 계 관 ⑥ 0 9 6 9
수 너 원 ② 7 0 3 2
사 무 실 ② 7 0 3 2

- ⑥ 미사시간 안내: 월-오전 6시, 화-오전 10시30분·오후 7시, 수·금-오전 6시·오후 7시, 목-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4시, 일-오전 6시, 10시30분·오후 3시·6시
⑥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매주<화> 저녁 8시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오늘 동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예비자 2단계 예식: 다음주(19일) 오전 9시
해당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식
을 받으신 분들은 26일에 영세를 받게 됩니다
4.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모니카회 월례회: 18일 오후 2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금주의 전례담당: 제2조, 차주는 제3조가 담당입니다
미사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책임감있게 합시다
7. 축! 혼인미사: 오늘 12시 30분
신랑-송성기(베드로)군, 신부-조진숙(미카엘라)양
8. 예수성심회: 솔피 성지순례-15일 6시30분 출발
9. M. E 참가부부 축하: 조흥기 부부와 조창익 부부
10. 아파트성당 소식
①주일학교 소풍 및사생대회: 오늘 오전 10시
장소-고산 웃메야리, 현지미사-오후 5시
준비물-도시락, 그림도구, 글짓기 준비 요망
오늘 아파트성당의 오후 4시미사는 없습니다
②예비자 환영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에
미사 30분전까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성모회 월례회: 16일 오전 11시
임원회는 15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④사도의 모후pr 선서식: 다음주에 있습니다
단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